

마동석·마블·툼크루즈 집합... 영화관 5월만 기다린다

마동석 주연 '범죄도시2' 흥행 노려
툼 크루즈 주연 '탑건:매버릭' 대기

확진자는 계속 줄고 있다. 거리두기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봄 만만 영화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에 집체를 거듭하던 국내 영화관 업계에도 봄이 찾아올까. 일단 5월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는 영화·드라마로는 충족할 수 없는 쾌감을 줄 만한 작품들이 5월에 대거 개봉하기 때문이다. 10~30대 관객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 영화 한 편, 40대 이상 관객의 추억을 자극할 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 액션영화 한 편이 대기 중이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기대작 한 편이 아니라 3편이 연달아 개봉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봄 만만 영화가 포진돼 있고, 골라볼 수 있다는 건 관객을 영화관에 오게 만들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마블의 새 슈퍼히어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다음 달 4일 개봉한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영화관

을 먹여살린 건 마블 영화였다. '블랙 위도우'가 296만명, '상지와 텐 링즈의 전설'이 174만명, '이터널스'가 305만명, '스파이더맨:노웨이 홈'이 755만명을 끌어들였다. '마블 플래'였다고 해도 될 정도였다.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마블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멀티버스를 본격적으로 여는 첫 번째 영화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마블 필수팬들 뿐만 아니라 그간 마블 영화를 꾸준히 봐온 관객 역시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가 선사할 수 있는 시각효과와 최정점을 이 영화가 보여줄 거라는 점에서 관객 구미가 당길 만한 작품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젊은 세대 관객의 발을 움직일 만한 영화라면, 5월25일 개봉 예정인 '탑건:매버릭'은 지극한 관객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작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영화는 1980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인 '탑건'(1986)의 후속작이다. 놀라운 건 36년의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액션 스타로 왕성히 활동 중인 톰 크루즈가



시 한 번 주연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 영화 속 크루즈가 연기한 캐릭터가 바로 '매버릭'이다. 영화관 업계는 '탑건'과 톰 크루즈라면 웬만한 작품엔 잘 움직이지 않는 40대 이상 관객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날아오르는 전투기 옆으로 매버릭이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케니 로킨스의 '데인저 존(Danger Zone)'이 흐르면 그 명장면을 '탑건:매버릭'에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탑건:매버릭'을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극장업계 관계자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탑건:매버릭'은 모두 극장에서 즐겨야 할 만한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두 작품이 같은 달에 개봉하게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탑건:매버릭이 마블 영화처럼 마니아층이 탄탄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흥행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많은 관객이 기다려온 한국영화 후속작도 대기 중이다. 2017년 10월 개봉해 688만 관객을 불러모았고, 각종 유행어는 물론이고 패러디물까지 양산한 영화 '범죄도시'의 후속작 '범죄도시2'가 5월 개봉을 확정했다. 관객이 다시 영화관을 찾게 하려면 결국 한국영화 히트작이 나와줘야 한다는 게 영화

계 공통된 생각이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관객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들이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흥행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도시2'가 총대를 멘으로써 영화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홍보사 관계자는 "외국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바이럴마케팅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한 편 한 편 영화의 영향력이 더 있다"며 "'범죄도시2'가 한국영화 개봉에 불꽃을 터뜨릴 것"이라고 했다. '범죄도시2'엔 전작에 이어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고, 배우 손석구가 새로 합류했다.

'플레이유' 본편 오는 12일 첫 공개

매주 화요일 카카오투브와 '플레이유'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카카오TV 오리지널 '플레이유'가 생방송 내용을 압축한 본편으로 돌아온다.

5일 카카오투브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실시간 라이브 하이라이트와 핵심만 담은 '플레이유' 본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플레이유'는 시청자들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유재석을 '플레이'하는 소용 예능. 시청자와 유재석이 생방송 소통으로 미션을 수행한다. 유재석은 현실 속 맵에서 시청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략을 짤다. 앞서 '플레이유'는 세 번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1회 본편에는 유재석의 미션 수행 과정과 결과까지 담는다. 미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라이브 채팅 댓글도 공개된다. 생방송 종료 후 유재석의 소감은 본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플레이유' 메인 포스터도 앞으로 방송 내용에 관한 궁금증을 더한다. '플레이유'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카카오투브와 '플레이유'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12일부터 공개되는 본편은 카카오투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신민아 등 새롭게 보일 것"



노회경 작가가 tvN 주말극 '우리들의 블루스'를 집필한 계기를 밝혔다. 노 작가는 4일 tvN을 통해 "언젠가부터 주인공 두 사람에게 집중된 이야기를 쓰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며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주인공 아닌가. 출연진 누구도 객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이 드라마의 첫 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노 작가와 김규태 PD가 '다이트'(2018)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

다. 삶의 끝자락 혹은 절정, 시작에 서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응원한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하며, 유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이병헌을 비롯해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엄정화 등이 출연한다. 노 작가는 "이번에 함께한 분들은 작가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이다. 그들이 응해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배우들의 연기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민한 건 단 한 가지 뿐"이라며 "그

오는 9일 tvN 첫 방송

분들에게 어울리고 능숙한 배역이 아닌, 지금까지 영화·드라마에서 '잘 안 했던 역할'을 주지 '배우들이 고민하게 하자' '시청자들이 배우들을 새롭게 보게 하자'고 마음 먹었다. 배우들은 힘들었지만, 내 욕심은 채워진 듯하다"고 했다. '우리들의 블루스' 등장인물은 이웃, 친구, 가족으로 얽혀 이야기를 만든다. 매회 메인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다른 에피소드 주인공이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노 작가는 "새로운 구성, 새로운 시선, 새로운 장르 등 그 갈구 속에서 유니버스 구성을 선택했다"며 "물임도 높은 단막극 장점과 매 회 공감을 가지고 전개하는 미니시리즈 장점을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블루스는 서민음악이 아니라, 테마를 가진 각각의 서민 이야기를 한 곡의 음악처럼 들려주고 싶었다. 몇 년 간 제주에서 글을 썼는데,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흠뻑 땀 흘렸다. 풍경뿐만 아니라 독특한 제주 관당문화(모두가 친인척인 개념)도 부러웠다. 남이 아닌 우리라고 여기는 관당문화는 사라져가는 한국의 뜨끈한 정서를 보는 듯했다. 선장, 해녀, 상인들 취재는 물론 오일장, 만물상 다큐멘터리를 일 년에 걸쳐 100여 편 이상 찾아보면서 그들의 동선, 말투, 심리, 애환에 공감했다." 9일 오후 9시10분 첫 방송.

이정은 첫 단독 주연 '오마주' 다음달 개봉

1세대 여성감독 영화 복원하는 영화감독 역

영화 '기생충'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이정은이 데뷔 이후 첫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가 다음 달 개봉한다. 준필름은 신수원 감독의 새 영화 '오마주'가 5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작품은 1960년대 활동한 한국 1세대 여성 감독 '홍은원'의 영화를 복원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만나게 된 중년 여성 감독 '지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1962년과 2022년을 잇는 시간여행을 담은 판타지물이다. 이정은이 '지완'을 연기했다. '오마주'엔 이정은과 함께 권해효·탕준상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신 감독은 "이 작품은 영화라는 꿈을 향해 도전해왔던 용감한 선배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저의 러브레터이자 오마주"라고 했다. 앞서 신 감독은 '명왕성'(2013) '마녀나'(2014) '우리 정원'(2017) 등을 연출해 주목받았다. 준필름은 조만간 '오마주' 개봉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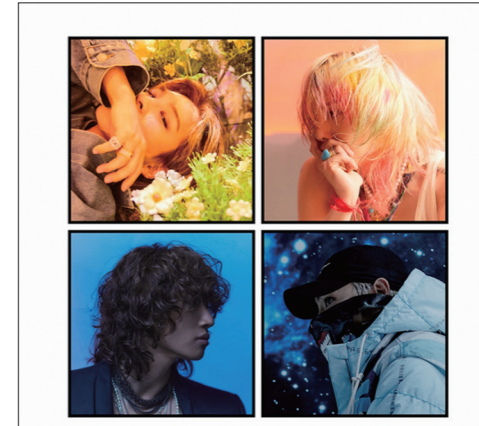


빅뱅, 신곡 디지털싱글 '봄여름가을겨울' 견재함 과시

4년 만의 신곡 음원차트 싸늘이

그들 빅뱅이 약 4년 만에 발표한 신곡 '봄여름가을겨울'로 견재함을 과시했다. 빅뱅이 5일 0시 공개한 디지털싱글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은 발매되자마자 아이튠즈 33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월드와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QQ뮤직,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 1위를 단숨에 점령했다. 소셜 미디어 반응도 뜨거웠다. 음원이 발매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BIGBANG_STILLIFE가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로 떠올랐다. #빅뱅오늘컴백은 중국 최대 커뮤니티 웨이보 핫 검색어를 차지하며 화제성을 자랑했다.

이날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淸明)에 해당하는 날.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봄여름가을겨울'은 이전 곡에서 '부디 또 만나요 꽃이 피면'이라고 노래했던 빅뱅의 약속과 봄의 기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만큼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의 사운드는 보다 따뜻하면서도 웅장하게 다가간다. 도입부부터 귀가 전율할 만큼 무겁게 울리는 태양의 그루브한 목소리, 이를 잇는 대성의 힘있는 가창, 이어지는 지드래곤과 탑 특유의 래핑은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의 탄탄한 서사와 감성을 배가했다"고 소개했다. 음악 팬들뿐 아닌 미국 롤링스톤, NME, 보그 등 주요 외신들도 빅뱅의 귀환을 주목했다. 롤링스톤은 "K팝 레전드가 돌아왔다. 이번 신



곡을 통해 빅뱅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은 이러한 슬픔과 찬란한 희망을 동시에 선사하는 명곡"이라고 호평했다.